

# 2019 서순실 심방 본풀이 채록

## 차사본풀이

차사본풀이>들어가는 말미

천왕 처서관장(差使官長)님, 지왕 처서관장님, 인왕 처서관장님, 연직(年直), 월직(月直), 일직(日直), 시직스제(時直使者), 옥황(玉皇) 군부도서(禁府都事), 저싱 이원스제(二元使者), 이싱은 강림스제(姜臨使者), 요왕국은 부원군(府院國) 스제, 멩두 멩감 삼처서, 옥황은 화덕처서님, 기혜년 몸받은 처서님, 눈이 붙어 황스제(黃使者), 코이 붙어 모람스제, 입이 붙여 악심스제(惡心使者), 아마도령 처서, 본당 처서, 신당 처서, 노중처서(路中差使), 도약처서(毒藥差使), 전량처서(結項差使), 부명처서(非命差使) 관장님 난산국입니다.

차사본풀이>본풀이

옛날이라 옛적에 동경국에 범무왕 데감님이 살읍데다. 부베간(夫婦間)이 아들은 낳는 게 아홉 성제(兄弟) 낳읍데다. 우으로도<sup>1)</sup> 삼형제가 멩(命)이 부족하고, 알로<sup>2)</sup> 삼형제도 멩이 부족하고, 가운데로<sup>3)</sup> 삼형제는 열다섯 십오세가 당협데다. 광양고을은 광양생이 두갯이가<sup>4)</sup> 삽데다.

동계남(東觀音)은 은중절, 서계남(西觀音)은 상세절, 남계남(南觀音)은 녹농절, 북하산은 미양안동절 폰처<sup>5)</sup> 직헌 데서(大師)님이 단 팔십(八十)을 살앗구나. 흐를날은 소서(小師)를 불러, “난 단 팔십을 사난, 모릿날<sup>6)</sup> 스오시(巳午時)가 뉘어 소거전명허건, 남 천 바리 뉘언 화장 시겨두고, 너랑 데서로 헤영 동경국 범무왕 아기 삼형제 데려당 소서로 앓지렌.”

헤엿구나. 모릿날 스오시가 당허난, 폰처 직헌 데서님 소거전명(四顧定命)헌다. 남 천 바리 뉘언 화장을 시겨두고, 폰처 직헌 데서님은 하늘 굴룬<sup>7)</sup> 굴송낙, 지에 굴룬 굴장삼, 아강베포, 직부잘리, 호름준치<sup>8)</sup> 둘러메언 소곡소곡<sup>9)</sup> 네렛구나. 동경국 범무왕 짓알로 도느리며,

“소승은 절이 뵈네다.”

“어느 절당에 데섭니까?”

“동계남 은중절에 살암수다.”

권제(勸齋) 반앙 가젠 허난,

“데서님아, 우리 아들 삼형제 원천강(袁天綱) 스저팔저(四柱八字) 7남<sup>10)</sup> 헤여 뵈서.”

단수육갑(單數六甲) 지편 허는 말이,

“멩도 부족헐 듯 허십네다. 영급 좋은 법당에 강 멩과 복을 이읍센.”

헤여두언, 데서님은 권제를 반앙 절간 법당더레 소곡소곡 올라갓구나. 범무왕 아기 삼형제는 비세 7치<sup>11)</sup> 울어간다.

1) 우으로도: 위로도.

2) 알로: 아래로.

3) 가운데로: 가운데로.

4) 두갯이가: 부부가.

5) 폰처: 부처.

6) 모릿날: 모레.

7) 굴룬: 가린.

8) 아강베포 직부잘리 호름준치: 종이 재미(齋米)를 얻으러 다닐 때 등에 지는 배낭.

9) 소곡소곡: 거침없이 앞으로 걸어가는 모양.

10) 7남: 가늌.

“설운 아기덜아, 절간 법당에 강 멩(命)과 복(福)을 이영 오렌.”

허난, 강모딘 강나룩,<sup>12)</sup> 수답은 수나룩,<sup>13)</sup> 모답이는 모나룩, 상백미(上白米), 중백미(中白米), 웨백미(下白米) 착쌀 엇이<sup>14)</sup> 출려간다. 물멩지, 강멩지 등에 지언 첩첩산중(疊疊山中)을 올라간다. 갓영 간 건 은분체에<sup>15)</sup> 도금<sup>16)</sup> 올령, 상탕(上湯)에는 메를 짓고, 중탕(中湯)에는 모욕(沐浴)허고, 하탕(下湯)에는 수족(手足) 씻쳐 백일 불공을 드려가는, 흐를날은 데서님이 곤는 말이,

“범무왕 삼형제야, 인간에 강 권제삼문(勸齋三文)을 받았 올라오렌.”

허난, 범무왕 아들 삼형제가 권제 받으레 동으로 들언 서으로 난다. 서으로 들언 동으로 나간다. 흡으로 솟솟들 받았 절간 법당더레 올라 보난 테역단풍이<sup>17)</sup> 잇엇구나. 삼형제가 테역단풍더레 헤트랭이<sup>18)</sup> 걸러지언 잇이난, 일출동경(日出東景)이 두둥실 떠엇구나. 이 아기덜 삼형제가 비세같이 올라간다.

“저 들은<sup>19)</sup> 곱기는 곱주만은 계수나무 박힌 듯 허여도 허공에 뜬 둘이라. 우리 고향땅 아바님 보아지고, 어머님도 보아지고, 우린 무슨 날에 난 팔저(八字)고.”

비세 7치 올라가난,

“나 동생덜아, 오라. 우리 절간 법당에 강 권제 받은 거 폰처님전<sup>20)</sup> 올려두고, 데서님헌테 허락(許諾)받앙, 우리 고향땅 강 오기가 어떻허넨?”

“어서 기영 헉서예.”

삼형제가 절간 법당 들어간다. 권제 받았 온 거 폰처님전 은분체에 도금 올려두고,

“데서님아, 데서님아, 우리는 부모고향산천에 강 오쿠덴.”

허난,

“아이고 설운 아기덜아, 아직 멩과 복을 다 못 이엇저.”

“못 살쿠다. 강 오쿠덴.”

허난,

“설운 아기덜아, 경 허민 느네덜 과양국을 조심헤영 넘어가질티야?”<sup>21)</sup>

“넘어가질쿠덴.”

허난,

“느네 갓영 온 거 물멩지, 강멩지 흐 사름이 세 필씩 등에 지라.”

등에 지엇구나. 폰처님전 절 삼베(三拜) 올려두고, 금마답에<sup>22)</sup> 수리 두고,<sup>23)</sup> 올레에 막음을 두고 첩첩산중(疊疊山中) 내려오라 간다.

과양국이 당허엇구나.

과양국이 당허난 난데엇는 시장끼가 7이 7이<sup>24)</sup> 나앗구나. 앞더레<sup>25)</sup> 흐 자국을 걸민, 듯터

11) 비세 7치: ‘비세’는 제비새를 줄임말 ‘제비새 같이 운다’는 정도의 뜻임.

12) 강나룩: 발벼의 일종.

13) 수나룩: 논벼.

14) 착쌀 엇이: 쪼개진 쌀알 없이.

15) 은분체에: 은부처에.

16) 도금: 돈(錢)과 금(金).

17) 테역단풍이: 단풍 든 잔디에.

18) 헤트랭이: 벌러덩.

19) 들은: 달은.

20) 폰처님전: 부처님전.

21) 넘어가질티야: 넘어갈 수 있겠느냐.

22) 금마답에: 마당에.

23) 수리 두고: 잠가서 봉한 표지를 하고. 흔히 ‘감봉수레 하고’라고 말함.

레<sup>26)</sup> 두 자국을 걸어간다.

“아이고 절간 법당에 데서님 굳는 말이 맞다. 나 동생덜아 허리띠 졸라 무끄라.”

“허리띠 졸라 무꺼도, 시장끼가 ㄱ이낭 못 가쿠다.”

알더레 바레보난, 청기와 집 천하거부제(天下巨富者) 집이 잇구나.

“나 동생덜아, 죽음과 삶이 맞서느냐? 이 집인 부제집이여. 식은 밥 물 혼 직이나<sup>27)</sup> 얻어먹  
게.”

“큰성님 먼저 들어갑서.”

들어가명 나사명,<sup>28)</sup>

“소승은 절이 뵈네다.”

과양생이 각시가 굳는 말이,

“아이고 어떻허난 우리 집이 종이 애기 들영 오람시니? 수벨캄아, 수장남아, 저 종이랑 웬  
귀로 떼리건 ㄴ단 귀로 네우리영<sup>29)</sup> 명석걸음<sup>30)</sup> 헤여보라.”

“아이고 셋성님아, 들어갑서. 큰성님 안 오람수다.”

셋성님 들어강,

“소승은 절이 뵈네다.”

과양생이 두갓이,

“수벨캄아, 수장남아, 저 중도 웬 귀로 네우리건 ㄴ단 귀로 네우령 명석걸음 헤여보라.”

큰성님도 아니 나오고, 셋성님도 아니 나오난, 죽은아시 들어가단 보난 성님덜 명석걸음 헤  
엿구나.

“아이고 요 어른아, 저 어른아, 우리도 원레 종이 애기덜 아납네다. 범무왕 아기덜 삼형젠데  
절간 법당 백일 불공 들영 오단 시장끼가 나난 식은 밥에 물 혼 직 얻어먹젠 들어오랏인디,  
동냥은 아니 주건 쪽박을 껴지 맙센.”

헤여가난,

“아이고 요것사,<sup>31)</sup> 무신 말이고 수벨캄아, 수장남아, 저 중덜 식은 밥에 물 줌양<sup>32)</sup> 수꾸  
락<sup>33)</sup> 세 계영 네여 주렌.”

허난, 혼 수꾸락 먹으난 눈이 벨롱허고,<sup>34)</sup> 두 수꾸락 먹으난 시장끼가 멀리고,<sup>35)</sup> 세 수꾸락  
먹으난 허리띠 끈이 클러지엇구나.

“우리 절간 법당에 놨이 밥 아니 먹나.”

등에 꺼 비련<sup>36)</sup> 혼 사람 석 자씩 끊영 수건 네여 주난, 수벨캄 수장남은 그걸 갖영 들어가  
난,

“그 애기덜 어드레 가니?”

---

24) ㄱ이ㄱ이: 목이 마른 상태.

25) 알더레: 앞으로.

26) 뒤틀레: 뒤로.

27) 혼 직이나: 한 모금이나.

28) 나사명: 나서면서.

29) 네우리영: 내후려쳐서.

30) 명석걸음: 명석말이. =명석거리.

31) 요것사: 요것이.

32) 줌양: 말아서.

33) 수꾸락: 손가락.

34) 눈이 벨롱허고: 눈이 약간 트이다. 배고픔을 벗어나게 되니 형편이 나아졌다는 뜻임.

35) 멀리고: 가고.

36) 비련: 부러서.

“동경국더레 갑데다예.”  
 “수벨캄아, 수장남아, 안사랑, 밧사랑, 네웨사랑 출려 노렌.”  
 허난, 출려 놓앗구나. 아이고 멘보선 바람에 나강 동경국더레 바레멍,  
 “설운 아기덜아, 가던 걸음 거 멈추라. 아이고 느네덜 가젠 허민 헤는 다 지엇이네. 이 밤, 저 밤, 야삼경(夜三更), 깊은 산중에 어디 강 잘티?<sup>37)</sup> 우리 집에 장 가렌.”  
 허난, 안으로 들어가난,  
 “철년주(千年酒)여. 말년주(萬年酒)여. 이테백이 먹다 남은 포도주로구나. 요 술 훈 잔 먹으민 철년을 사고 말년을 산덴.”  
 허난,  
 “우리 절간 법당에 술과 고기 아니 먹읍네덴.”  
 허난,  
 “아이고 우리도 절간 법당 갈 떼 술과 고기 아니 먹어도, 절문 뱃끼디<sup>38)</sup> 나오민 먹어진덴.”  
 허난, 과양생이 께에<sup>39)</sup> 넘어간다. 못 먹는 술을 먹엇구나. 이레착, 저레착 등에 꺼 이레 비려, 저레 비려가난 과양생이 각시 확허게 놀려 들연 안아단 통쇄에 종갓구나. 종가 놓안,  
 “넬 아척이<sup>40)</sup> 일어나민 요걸 좇일 거난.”  
 삼년 묵은 찻지름,<sup>41)</sup> 육년 묵은 촌간장을 헤여단 석탄불에 와상와상 께어당,<sup>42)</sup> 웬 귀로 지우리난 ㄴ단<sup>43)</sup> 귀로 나왔구나. ㄴ단 귀로 지우난 웬 귀로 나오난, 범무왕 아덜 삼형제 과양생이 두갓이 손에 죽엇구나~.  
 이 아기덜 가망이에 툃툃허게 썬다. 가망이에 툃툃허게 쌍,  
 “수벨캄아, 수장남아, 돌 무경 주천강 연네못디 강 수장(水葬) 시겨동 오민 느네 종반열 시겨주마.”  
 “기영 험셴.”  
 허난, 돌 무경 주천강 연네못디 강 수장 시기난, 요왕에선 범무왕 아기덜 삼형제 빨간 꽃,<sup>44)</sup> 노란 꽃, 파란 꽃 연꽃으로 환싱(幻生)헤엇구나.  
 뒗날<sup>45)</sup> 아척<sup>46)</sup> 과양생이 물 물 맥이레 물석<sup>47)</sup> 심영 가,난 난데엇는 꽃은 피고 시체 아니 떳구나. 물은 물을 먹젠 헤연 물 주뎡이 물더레 먹어가가민, 삼색백이<sup>48)</sup> 꽃이 놀려 들연 물 주뎡이 박박 모지르난 물은 말 모른 짐승이난 앞발만 풍덩풍덩 짝어간다. 집이 오랑 각시헌티 굴으난, 과양생이 각시 ㄱ는데 질누끼에<sup>49)</sup> 빨레 소답<sup>50)</sup> 물소 물마께 놓안 연네못디에 네렛구나. 물팡돌에 앓안 빨레 왈랑실랑 허단,  
 “아이고 우리 집이 테운 꽃이랑, 나 앞더레 오렌.”

37) 잘티: 잘 것이냐.

38) 뱃끼디: 밖에.

39) 께에: 께에.

40) 아척이: 아침에.

41) 찻지름: 찻기름.

42) 께어당: 끓여서.

43) ㄴ단: 오른쪽.

44) 꽃: 꽃.

45) 뒗날: 뒗날.

46) 아척: 아침.

47) 물석: 말고삐.

48) 삼색백이: 삼색박이.

49) ㄱ는데 질누끼에: 가는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에.

50) 소답: 빨래.

물마개로 증곰증곰<sup>51)</sup> 물을 앞더레 등겨가난 앞이 오는 꽃은 빨간 꼬장이로구나.<sup>52)</sup> 불긋, 불긋 용심이 난 듯 헤엿구나. 꺼꺼<sup>53)</sup> ㄱ는데 질누끼에 담아간다. 두에 오는 노랑 꼬장은<sup>54)</sup> 비세 ㄱ치 우는 듯 헤영 오랏구나. 꺼꺼 ㄱ는데 질누끼에 담아두고, 세 번째 오는 파랑 꼬장은 방실방실 웃는 듯 꺼꺼 ㄱ는데 질누끼에 놓앙 집이 오란 앞 무똥에<sup>55)</sup> 듯 무똥에 생기주동에 꺼꺼 낀 걸 꽃아 놓앗구나. 과양생이 각시 아침이 쏘 거리레 가민 삼색벚기 꽃이 놀려 들언 앞살작, 뒷살작 북북 메고, 장 거리레 가 가민 앞살작, 뒷살작 북북하게 메고, 조반 밥상 출려 들어가민 일갑 상투를 클르고,<sup>56)</sup> 정싱<sup>57)</sup> 밥상 출령 들어가민 이갑 상투를 클르고, 저녁 밥상 출령 들어가민 삼갑 상투를 클러가난,

“요 꽃은 곱다만은 행실이 굿덴.”

헤연, 청동아리(靑銅火爐)더레 북북 구견 불을 살라부난, 빨간 구슬, 노란 구슬, 파란 구슬로 환싱(幻生)헤엿구나. 옆집이 청타구 마구할마님 청분체<sup>58)</sup> 들런 불 담으레 오랏구나.

“아이고 애기어멍아, 불이나 잇건 이레 불 흐끔 도라.”

“정지에 강 봅서.”

솟강알<sup>59)</sup> 부지땡이로<sup>60)</sup> 헤치난 불 엇엇구나.

“할마님 청동아리 불하시로<sup>61)</sup> 헤청 봅서.”

청동아리에 불하시로 헤청 보난,

“아이고 이디 구슬이 잇덴.”

허난,

“요레 줍서.”

꼭하게 빼여 각진장판(角壯壯版)에 놓안 동그려 간다. 손바닥에 놓안 동글동글 노렴한다. 입바닥에 놓안 이빨 사이로 혃바닥으로 동글동글 놀려 가난 목 알더레 네렛구나.

석 들 열흘 백일이 뒤여가난 과양생이 각시가 먹던 밥에는 굴네가<sup>62)</sup> 나고, 먹던 장에는 장칼네가<sup>63)</sup> 나고, 입던 옷엔 똥네<sup>64)</sup> 나고, 먹던 물엔 펄네가<sup>65)</sup> 난다. 일곱 ㄹ뎡 아호<sup>66)</sup> 열 들은 뒤언 아기 난 건 보난, 아덜 삼형제가 낫구나. 과양생이 두갯이 하도 지꺼지언 우리 상세관 어전에 서신(書信)을 올리난,

‘계세기랑<sup>67)</sup> 낫느냐? 도세기세기랑<sup>68)</sup> 낫느냐? 도세기체<sup>69)</sup> 석 섬을 네여 주엇구나.’

51) 증곰증곰: 조심스럽게 하는 모양.

52) 꼬장이로구나: 꽃이로구나.

53) 꺼꺼: 꺾어.

54) 꼬장은: 꽃은.

55) 무똥에: 처마 밑에 신발 따위를 벗어 둘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에.

56) 클르고: 풀고.

57) 정싱: 점심.

58) 청분체: 청부채.

59) 솟강알: 아궁이.

60) 부지땡이로: 부지깽이로.

61) 불하시로: 부젓가락으로. ‘하시(はし)’는 젓가락을 뜻하는 일본어.

62) 굴네가: 본래의 맛이 변하여 나는 좋지 아니한 냄새가.

63) 장칼네가: 묵은 장에서 나는 냄새가.

64) 똥네: 땀냄새.

65) 펄네가: 물비린내가.

66) 아호: 아흡.

67) 계세기랑: 개새끼를.

68) 도세기세기랑: 돼지새끼를.

69) 도세기체: 돼지먹이.

노는 것도 활소리여. 노는 것도 글소리여. 훈 설 두 설 열다섯 설 십오세(十五歲)가 당헤엿구나.<sup>70)</sup>

흐를날은 이 아기덜 삼형제가 곤는 말이,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우리 서울 상시관(上試官)에 과거(科擧) 보레 가쿠다. 서울 상시관에 과거 본덴 헤염수다.”

“아이고 느네덜 어느 손땅에 맞지고, 발땅에 맞지고, 죽영 아니 웬다. 가지 말렌.”

허난,

“사나이 데장부(大丈夫)로 낫인다.<sup>71)</sup> 과거 훈번 못 본덴 허는 말이 뉘 말이우파? 허락(許諾) 협센.”

허난,

“어서 기영허라.”

서울 상시관에 강 도올랏구나예~.

큰아덜은 문서급제(文選及第), 셋아덜은 장원급제(壯元及第), 작은아덜 팔도도자원(八道都壯元)이로구나. 어수예(御賜花), 비수예, 삼만관속(三萬官屬), 피리단절, 옥단절, 행금,<sup>72)</sup> 주테 들령 와락치락 과양국더레 네렛구나예~.

동안(東軒) 마당에 과겻기가<sup>73)</sup> 둥둥 뜨난, 과양생이 각시 아침에 일어난 보난, 동안 마당에 과겻기가 떠엿구나.

“아이고 나년이 팔저(八字)여. 나년이 소저(四柱)여. 아이고 우리 애기덜은 삼천선비 밭에서 죽엇이멍, 손에서 맞앙 죽엇이멍, 어느 집은 산천이 좋앙 과거헤영 오람신고.<sup>74)</sup> 아이고 저 산천 좋은 집은 나 앞이서 훈 날 훈 시에 온딱 죽어불렌.”

후욕노욕(詬辱怒辱) 헤엿구나예~.

흐꿈 잇이난, 과양생이 집더레 과겻기가 둥둥 떠엿구나.

“아이고 나 아기덜 착허다. 문전(門前) 모른 공서(公事)가 잇이느냐?”

문전더레 평풍 쳐놓고, 상 출랑 절을 헤엿구나.

“아이고 우리 애기덜 절헤나건 우리도 과거절 받으젠.”

암만 앓아 기다려, 사 기다려헤여도, 아기덜은 안 일어나난 필아곡절허다. 와다닥 놀러들언 네영 영 보난, 과양생이 아덜 삼형제 벌써 죽영 저싱 초소렴(初小殮) 질을 걸엄구나~.

“나년이 팔저로구나. 이 아기덜 훈 날 훈 시에 삼형제가 나고, 훈 날 훈 시 삼형제가 과거허고, 훈 날 훈 시에 죽엇구나.”

앞बाट, 뒷बाट, 옆बाट 임시 출병막(出兵幕)을 출려 놓고, 원님앞이,

“무신 덕분에 죽엇이리라?”

아침 소지, 낮 소지, 저녁 소지에 벉 소지, 석 들 열흘 벉일이 뉘언 아홉 상자 반이 뉘어도 원님한테 이렇단 말이 엇이난, 하도 부애가 나앗구나. 흐를날은 넘어가멍,

“개 ㄱ뜬<sup>75)</sup> 짐치원아, 쉼 ㄱ뜬<sup>76)</sup> 짐치원아, 득도<sup>77)</sup> 죽이젠 허민 씨 깎을<sup>78)</sup> 냉겨동 죽이는

70) 당헤엿구나: (그 나이에) 다다랐구나.

71) 낫인다: 낫는데.

72) 행금: 거문고. 거문고는 삼국사기에 거문고는 중국 진(晉)나라의 칠현금(七絃琴)을 고구려의 왕산악(王山岳)이 개조하여 만든 악기인데 이를 연주하자 검은 학이 날아와 춤을 추었다. 그래서 이름을 현학금(玄鶴琴)이라 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현학금(玄鶴琴)을 줄여 현금(玄琴)이라고도 한다.

73) 과겻기가: 과거급제 하였다고 알리는 깃발이.

74) 오람신고: 오고 있는가.

75) 개 ㄱ뜬: 개 같은.

76) 쉼 ㄱ뜬: 소 같은.

법인데, 우리 아덜 삼형제가 무신 덕분에 나고, 무신 덕분에 과거하고, 무신 덕분에 죽었이리라? 아침 소지(所志), 낮 소지(所志), 저녁 소지(所志) 석 둘 열흘 아홉 상자 반이 되어도, 이 소지 절처(決處)를 못허난, 이 고을 떠나라 똑똑헌 원님 낵 이 소지(所志) 절처(決處)를 허여보켜이.”

넘어가명 이 말을 곱으난, 원님은 하도 기가 맥헛구나. 책불(冊佛)을 싸앗구나. 마마부인 굳는 말이,

“원님아, 원님아, 이 많은 스실(事實)로 책불을 쌓으면 뵈니까? 나 말을 들읍서. 우리 고을에 똑똑하고 영력헌<sup>79)</sup> 관장(官長)이 누게가 잇우파?”

“강림이 강파디가 잇우다. 으덱(八) 술은 뵈난 사랑(使令)에 이참(入參)하고, 여레덱(十八)은 나난 문 안네도 기생호첩(妓生好妾), 저 문 벅끼디도 기생호첩(妓生好妾), 강림이 강파디가 잇우다.”

“오늘 저녁이랑 이수팔수(二數八數) 토령법(土壟法)을 놓서. 넬랑 열 관장에 사발통지(沙鉢通紙)를 돌립서. 사발통지 돌령 관장 하나 떨어지건 염라데왕(閻羅大王) 데려당 이 소지 절처(決處)허는 건 어뎡헛네까예~?”

“어서 기영 헛서.”

그날 저녁 이수팔수 토령법을 논다. 듯날 아척 게폐문(開閉門)을 열어간다. 열 관장에 사발통지를 돌리난, 관장 하나가 떨어졌구나.

“누게가 뵈겿느냐?”

“강림이 동안(東軒) 마당 궐(闕)입네다~.”

강림이 기생호첩에 들언 동안 마당 궐(闕)을 네엇구나. 동안 마당에 내려오난 앞밭디는 작두를 걸라. 듯밭디는 버텅을<sup>80)</sup> 걸라. 즈각(刺客)놈을 불러다가 강림이 목에 큰칼을 씨어건<sup>81)</sup> 죽이젠 동이 푼짜, 서이 푼짜 허난 강림이 굳는 말이,

“죽을 일이 잇이민 살 일이 잇는 법이고, 무신 덕분에 나 목에 큰칼을 씨우데가?”

“열 관장에 궐(闕)이 뵈엇우다.”

“어뎡허민 살아집네까?”

“그 칼에 목을 베영 죽으쿠가? 아니민 저싱 강 염라데왕(閻羅大王)을 데려 오쿠가?”

“나 이떼<sup>82)</sup> 관장직을 살앗인디, 이만헌 일로 죽을 수가 엇입네다. 저싱 강 염라데왕을 데려오겿습네다.”

목에 큰칼을 베껴간다. 목에 큰칼을 베껴두고 관장패(官長牌) 네여 둔다. 종이 소지(所志)를 네어두난 콤<sup>83)</sup> 콤어간다. 강림이,

‘어딜 가민 좋고? 어딜 가민 좋고?’

이방왕(吏房房)에 들어강,

“날 살려 줍서.”

“원님 허는 일이 우린 모릅네다.”

상방왕(刑房房)에 들어강 강림이,

77) 독도: 닭도.

78) 깎을: 값을.

79) 영력헌: 영리한.

80) 버텅을: 형틀을.

81) 씨어건: 씨워서.

82) 이떼<sup>82)</sup>: 이때까지.

83) 콤: 품에.

“살려줍센.”

허난,

“원님 허는 일 우린 모릅네다.”

“어딜 가켤?”

사령방(使令房)에 들어가도,

“원님 허는 일 우린 모릅네다.”

글로 성방방에 들어가도,

“원님 네는 일 우린 모릅네다.”

“어딜 가리?”

마마부인한테 가난,

“아이고 강림아, 오늘 가민 언제 올 꺼고, 나 술 혼 잔 먹고 가라.”

권주가(勸酒歌)를 불러주난,

“이 세상에 살 땐 술친구가 좋아도 나갈 땐 저싱 갈 땐 나 혼자로구나예~.”

강림이 동안(東軒) 마당 나사난, 동서(東西) 막음 헤엿구나. 아이고 오늘 가민 언제 올 중 몰르난 조강지처(糟糠之妻) 사는 디나 들어가젠 먼 올레 들어가단 보난, 강림이 큰각시 도웨낭<sup>84)</sup> 방에 도웨낭 절구데 물보리<sup>85)</sup> 놓앙.

“이어 방에 이어 방에 낭군님아, 올레 정살남을<sup>86)</sup> 걸어동 들어 읍데강?<sup>87)</sup> 가시낭을<sup>88)</sup> 걸어동 들어동 읍데강? 범주리낭<sup>89)</sup> 가지나 걸어동 들어옴이파?”<sup>90)</sup>

이 말을 들은 체도 안혀여 안네 들어강 보난, 흠어멍 살림 든든허게<sup>91)</sup> 살았구나. 흠아방은 거적문을<sup>92)</sup> 돌아도<sup>93)</sup> 흠어멍은 은동이가 아홉 게 뉘게 튼튼한 살림을 살았구나. 안네 들어갓구나. 이불자리 폐완 벤 베게가 용수(湧水) 뉘게 강림이 비세?치 올엇구나. 강림이 큰각신 옛 정은 호정(好情)이라, 밥 혼 상을 출령 문을 열젠 허난 문을 잔뜩 증갓구나.

“아이고 이 어른아, 저 어른아, 이 중근 문이나 열어봅서. 여자이렌 허는 거는 산더레 돌아 앓 앙 소피(所避)를 보양 치멧각<sup>94)</sup> 젓는 줄 모른 게 속 좁은 게 여자우다. 그 말 혼 마디에 이 문을 증급데가? 중근 문이 열어봅서예~.”

열란 안네 들어갓구나.

“이 밥이나 먹읍서.”

첫 수꾸락에 목이 탁 맥헛구나.

“나한테 속펜<sup>95)</sup> 말 험서. 난 당신한테 가문머리<sup>96)</sup> 육갑 갈라 데완 시집을 오란, 당신 없는 살림 오늘까지 살았우께. 나한테 속펜 말 못허쿠파? 속펜 말 헤여봅서.”

아이고 강림이가 입을 열어간다.

84) 도웨낭: 복숭아나무.

85) 물보리: 아직 충분히 여물지 않아 물기가 많은 보리.

86) 정살남을: 거릿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대문(大門) 대신 가로 걸쳐놓는 길고 굽직한 나무을.

87) 읍데강: 읍니까.

88) 기사낭을: 가시나무를.

89) 범주리낭: 실거리나무.

90) 들어옴이파: 들어오고 있습니까.

91) 든든허게: 단단하게.

92) 거적문을: 문짝 대신에 거적을 친 문을.

93) 돌아도: 달아도.

94) 치멧각: 치맛자락.

95) 속펜: 속의.

96) 가문머리: 검은머리.

“저싱 강 염라데왕 데령 오렌 허난, 저싱더레 가는 질에 당신 마지막으로 보왕 가젠 들어오구렌.”

허난,

“원님이 본메 본짱을<sup>97)</sup> 줘데가?”

“주어라.”

“네어보셴.”

헌 거 보난 흰 종이에 검은 글을 네여 놓앗구나.

“아이고 낭군님아, 오늘??지 관장직(官長職)을 살아도 저싱 글도 모르고, 이싱 글도 모릅네까? 이싱에 사름들은 흰 종이에 검은 글을 쓰고, 저세상 글은 흰 종이에 검은 글이나~ 쓰는 법이우다. 흰 종이에 붉은 글을 써사 저싱 사람 쓰는 글 아니우파? 요 밥 먹읍셴.”

헤연, 동안 마당에 네렸구나.

“원님아, 원님아, 이걸 갖연 검은 머리가 백발(白髮)이 뒤도 저싱 못갑네다. 흰 흥에<sup>98)</sup> 붉은 글을 줍서. 붉은 흥에 흰 글을 네여 줍셴~.”

그때 넌 법으로 빨간 멩전법(銘旌法) 마련헤엿우다. 흰 독세기로 글을 써근에 믱물?루 헛허게 치민 사람 죽어 멩전법을 마련헤엿우다예.

집이 오란, 강림이 큰각시 석 섬 쓸을 서 말에 다듬고 서 말 쓸은 석 뒤에 다듬앗구나. 물방에 놓안 찍어간다.

“이어 방에 이어 방에.”

이 방에 찍엇구나. 체할망<sup>99)</sup> 불러단 체를 치난, 체 알에 ?루는 줍진도 줍진다. 강남서 들어온 조그만 멩솅에,<sup>100)</sup> 일본서 들어온 조그만 멩시레,<sup>101)</sup> 초징, 이징, 삼징을 놓앗구나. 서각(書閣)을<sup>102)</sup> 띠운다. 우이 꺼는,

“문전하르바님, 낭군님 저싱 감수다. 질토레비<sup>103)</sup> 질간관(一監官) 맥입서.”

가운디 꺼는,

“조왕할마님, 강림이 저싱 감수다. 청셋비로 헤칩서. 흑셋비로 헤칩서.”

멘 알에 낀 강림이 정싱 밥을 싹구나.

“낭군님아, 일어낭 저싱 갑서.”

포따리 하나 네여 논다.

“요걸 입읍셴.”

허난, 입어간다. 남방사주(藍紡紗紬) 붕에바지,<sup>104)</sup> 백방사주(白紡紗紬) 접저구리,<sup>105)</sup> 별통행견 백록버선(白綾--), 한삼모시(韓山--) 두루막,<sup>106)</sup> 남수와시(藍水禾紬) 적쾌지(赤快子), 울문데단(雲紋大緞) 안을 바쳐, 솟구리 데행침(大行纏)을 허고, 앞에는 논론 논 제(字), 뒤에는 임금 왕 제(字), 관장페(官長牌)는 등에 지고, 종이 소지는 쿨에 쿨고, 홍사줄(紅絲紬)은 옆이 치어간다. 바농<sup>107)</sup> 하나를 갖영 오란, 관디(冠帶)에 쾌지(快子) 앞더레 꼭허게<sup>108)</sup> 찢렸구나. 강림

97) 본메 본짱을: 증거가 되는 물건을.

98) 흥에: 종이에.

99) 체할망: 체질을 잘하는 사람.

100) 멩솅에: 메 솔에.

101) 멩시레: 제사에 올릴 시루떡을 지는 시루.

102) 서각(書閣)을: 서신(書信) 정도의 뜻임.

103) 질토레비: 길잡이.

104) 붕에바지: 솜바지.

105) 접저구리: 겹저고리.

106) 두루막: 두루마기.

이 먼 올레 나사난 아그랑작대기,<sup>109)</sup> 불 부똥 부지땡이<sup>110)</sup> 짚언 엄똥 허난, 할마님이 넘어감 구나.

“아이고 여잔 꿈에만 봐도 세물(邪物)인디, 사나이 데장부(大丈夫) 가는 길에 할마님 영 짚을 갈람신고?”

할마님은 미치젠<sup>111)</sup> 강림이 뛰어가민 할마님도 뛰어가고, 강림이 걸어가민 할마님도 걸어가 는구나. 가단 높은 동산이 잇이난 동산더레 강림이 잇이난, 할마님도 강림이 옆더레 오라 쉬 었구나. 필아곡절(必有曲折)허다. 할마님한테 절을 소곡허난,<sup>112)</sup>

“아따 어떤 장방항수가 우리 ㄱ똥 늑신네안티<sup>113)</sup> 절을 헤염신고?”

“할마님, 그런 말씀 맏서. 우리 집에도 노부모(老父母)가 잇습네다. 읍서. 우리 정싱밥이나 먹게.”

정싱밥은 네여 논 거 보난,

“할마님, 정싱밥허고 나 정싱밥은 흥 솟떼 흥 손메우다.”

그때 욱을 헤엿구나.

“이놈, 저놈, 궤썸헌<sup>114)</sup> 놈, 너허는 행실은 궤썸허여도 너네 큰각시 사는 조왕할마님이영. 나 저싱길 청셋비도 헤쳤구나. 흑셋비로 헤쳤구나. 율로<sup>115)</sup> 가당 보라. 백발노인(白髮老人)이 앓안 바둑 장계 두엄시난, 그덜 가민 너 저싱갈 짚 알아진덴.”

허난, 엄똥 허난 할마님이 감감무중헤엿구나. 따시 걸영 가단 보난 백발노인이 삼각수(三角鬚) 거시령 바둑 장겔 두엄구나, 절을 소곡허난,

“어디 사는 장방항수가 우리 늑신네한테 절을 헤염신고?”

“우리 집도 노부모가 잇습네다. 읍서. 우리 정싱밥이나 먹어보게.”

정싱밥은 네여 논 거 보난, 흥 솟디<sup>116)</sup> 흥 손메가 뒤엇구나.

“어떻허난~ 할마님 정싱허고 나 정싱은 하르바님과 ㄱ뜨파?”

“이놈, 저놈, 궤썸헌 놈 나는 너네 큰각시 집 문전하르방이로구나. 나는 너 저싱질 가리차주 레 오랏구나. 일흔여덟 흥 ㄱ르<sup>117)</sup> 짚<sup>118)</sup> 세당 나머지 너 들어갈 짚이여. 가당 보민 질토레 비<sup>119)</sup> 짚을 다깜시난,<sup>120)</sup> 나 밥이랑 ㄱ찌 먹고 너 밥이랑 그 질토레비 주어보민 알아볼 도리 (道理)가 있어지다예~.”

일흔여덟 흥 ㄱ르 짚을 네여 준다. 요 짚은 원왕감서(元王監司) 원병서(員兵使)가 들어간 짚, 시왕감서(十王監司) 신병서(新兵使)가 들어간 짚, 짐추염나(金緞閻羅)는 테선데왕(泰山大王) 들어간 짚, 범 ㄱ똥 스천데왕(四天大王) 들어간 짚, 초제(初第) 진광데왕(秦廣大王) 들어간 짚, 이제(二第) 초관데왕(初江大王), 제삼(第三)은 송교데왕(宋帝大王), 제네(第四) 오관데왕(伍

107) 바눔: 바늘.

108) 꼭허게: 찌르는 모양.

109) 아그랑작대기: 사냥꾼이 눈 위에서 짚고 다니는 Y자 모양의 작대기.

110) 부지땡이: 부지깽이.

111) 미치젠: 이르려고 하면.

112) 소곡허난: 몸을 숙이는 모양을 하니깐.

113) 늑신네안티: 늑은이한테.

114) 궤썸헌: 궤심한.

115) 율로: 여기로.

116) 솟디: 솟에.

117) ㄱ르: 고비.

118) 짚: 길.

119) 질토레비: 길잡이.

120) 다깜시난: 닦고 있으니깐.

官大王), 다섯은 염나데왕(閻羅大王), 으섯은 번성대왕(繁盛大王), 일곱은 테선대왕(泰山大王), 여덟은 평등대왕(平等大王), 아홉은 도시대왕(都市大王), 열시왕(一十王)이 들어간 질, 지왕대왕(地藏大王), 생불대왕(生佛大王), 자득생명(左頭生命), 우득생명(右頭生命), 십오동존(十五童子), 십육스제(十六使者), 이십(二十)은 소판관(使判官), 이구(二軍) 제왕(諸王) 들어간 길, 천왕처서(天皇差使), 지왕처서(地皇差使), 인왕처서(人皇差使), 연직(年職), 월직(月職), 일직(日職), 시직스제(時職使者), 금부도서(禁府都事) 들어간 길, 명두명감(冥道明官) 삼처서(三差使) 요왕(龍王) 거복스제 들어간 길,

“강림아, 너 들어갈 질은 재미연뿔만 헛 질이로구나에-.”

어주릿질, 비주릿질,<sup>121)</sup> 눈비역은<sup>122)</sup> 한탈나무,<sup>123)</sup> 가시덤불, 띠덤불을 넘어가는구나. 가단보난 질토레비 질을 다끄단 베고판 무정눈에<sup>124)</sup> 즘을 잠구나. 강림이 정심밥 네여 노난 무정눈에 즘자당도 와들랭이<sup>125)</sup> 일어남 그 밥을 먹언 듯터레<sup>126)</sup> 베레보난 하늘과 꺾뜩헌 관장으로구나.

“어떻헤영 나 베 고프른 줄 알앙 나 밥을 줌이꽈?”<sup>127)</sup>

“무신 덕분에 베 고프름 이 질을 다감수께?”

허난,

“난 저싱 염나데왕(閻羅大王) 몸 받은 이원제빈디, 모리날 스오시(巳午時)에 알엿녁 즘복장 제집이 단뿔애기 아판 전세남<sup>128)</sup> 허난, 염나데왕 네리게 뉘난 미리 질을 다감수다.”

“나는 이싱에 원님 몸 받은 강림이 강파딘디, 저싱 염라데왕 데리레 감수다.”

“아이고 이싱 동관(同官)님아, 검은 머리 백발이 뉘도 갈 수가 엿는 게 저싱이우다. 본메 본짱<sup>129)</sup> 갓영 옹데가? 뉘이우꽈?”

그 법으로 사름은 죽으민 동심절(同心結)을 무어사 뉘는 법이우다에~.

동심절을 네여 놓앗구나.

“가젠 허민 신체는 못 갈 꺼난, 혼(魂)으로 갓당 옹서.”

혼적삼을 네여 준다. 이구산에 올랐구나.

“강림이 본, 강림이 본, 강림이 본입네다.”

강림이 삼혼정(三魂情) 저싱 초군문(初軍門)에 당헤엇구나. 모릿날 스오시(巳午時)가 당허난, 선베, 후베, 곁람베, 조삼베 기(旗) 들은 이, 창(槍) 들은 이, 행금(玄琴) 주테 들은 이덜 와락치라 저싱 염나데왕님이 내려온다. 초군문에 본메 본짱을 부껴시난,

“저건 누게가 부껴느냐?”

허난,

“강림이가 부껴우덴.”

허난, 강림이를 심영 오랜 허,난 강림이 붕에 눈을<sup>130)</sup> 부릅뜬다. 청동(靑銅) 꺾뜩 풀따시를<sup>131)</sup> 건어간다. 베락 꺾뜩 소리 와락치라 치어간다. 첫번째 가마에 빈 가마, 두 번째 가마도

121) 어주릿질 비주릿질: 울통불통하여 고르지 못한 길.

122) 눈비역은: 풍설(風雪)은.

123) 한탈나무: 산딸기나무.

124) 무정눈에: 무정하게 감기는 눈에.

125) 와들랭이: 누웠다가 급히 일어나는 모양.

126) 듯터레: 뒤로.

127) 줌이꽈: 주는 것입니까.

128) 전세남: 병자의 쾌유를 기원하는 곳.

129) 본메 본짱: 증거가 되는 물건.

130) 붕에 눈을: 봉황새처럼 동그랗게 부릅뜬 눈을.

빈 가마, 세 번째 가마도 빈 가마, 다섯 번째 가마에 강 보난, 염나데왕(閻羅大王)님도 강림이 한티 드난 가마 연분줄에<sup>132)</sup> 툄툄허게<sup>133)</sup> 앳앳구나예~. 염라데왕님이 곤는 말이,

“아이고 강림아, 인정주마. 스정주마. 혼 베코만<sup>134)</sup> 녹에도라.<sup>135)</sup> 혼 베코만 녹에도라.”

허난 법으로 염나데왕(閻羅大王)님도 인정 걸어난 법이 잇습네다. 우리 인간 사름덜토<sup>136)</sup> 죽영 가민 열두 문에 인정 거는 법입네다.

강림이 인정 걸어주난 스문절박(私門結縛) 끈을 클렀구나.

“오라. 나영 ㄱ찌 내려가게.”

“어디 갈 꺼꽈?”

“알엿녁에 즈복장제집이 단똥애기 아판 전세남 험저. 오라. 가게.”

네령 오라간다. 미여지벵디<sup>137)</sup> 오난,

“암만 똑똑헤여도 이거 어떻 얼만이나 똑똑헌고?”

훈번 보젠 헤연 염나데왕님은 미여지벵디에 ㄱ랏으로<sup>138)</sup> 환싱(幻生)헤여부난, 강림인 듯터레 바레보난 염나데왕 왓시카부덴<sup>139)</sup> 허난, 강림이 염나데왕 일러불엇구나.<sup>140)</sup> 미여지벵디에 암 만 슬퍼도<sup>141)</sup> 엿엇구나. ㄱ만이 앳안보난 ㄱ랏<sup>142)</sup> 하나가 이레 혼들, 저레 혼들 헤염구나. 아이고 고랏을 확허게 후리난, 염나데왕(閻羅大王)이 번똥허게 나오란,

“똑똑허다. 영력허다 오라. 네리게.”

알엿녁에 네렸구나.

알엿녁에 네리난 천도천왕(天都天皇), 지도지왕(地都地皇), 인도인왕(人都人黃), 삼간지 오룬 지법으로<sup>143)</sup> 천신기는 지낫츰고, 흑신기는 지드투고, 천지이망주<sup>144)</sup> 하늘이 칭칭허게 신수푸고, 삼버릿줄<sup>145)</sup> 줄싸메여<sup>146)</sup> 데통기, 소통기, 지리에기, 양산기, 줄전나비<sup>147)</sup> 놓고, 안으로 비저나무<sup>148)</sup> 상당클,<sup>149)</sup> 계수남은 중당클, 준지남은 하당클 츄실 ㄱ튼 오리베로 말 귀ㄱ치 네 귀 즈썩 헤영 팔만금세진(八門金蛇陳) 치여놓고,

“저싱왕도 왕이웨다. 이싱왕도 왕이웨다. 염나데왕(閻羅大王)님이 읍셴.”

허난, 염나데왕(閻羅大王)님은 안으로 들어갓구나. 염나데왕(閻羅大王)님은 들어가도 강림이 는.

131) 풀따시름: 팔뚝을.

132) 연분줄에: 연(蠶)가마의 채.

133) 툄툄허게: 갑자기 힘없어 하는 모양으로.

134) 베코만: 밧줄의 한 고만.

135) 녹에도라: 늦추어 달라. 누그러지게 해 달라.

136) 사름덜토: 사람들도.

137) 미여지벵디: 아무 거침없이 트인 널따란 별판.

138) ㄱ랏으로: 가라지로.

139) 왓시카부덴: 오고 있는 줄 알고.

140) 일러불엇구나: 잃어버렸구나.

141) 슬퍼도: 살퍼도.

142) ㄱ랏: 가라지. 벵과의 한해살이풀.

143) 삼간지 오룬지법으로: 삼강오룬법(三綱五倫法)으로.

144) 천지이망주: 곳을 할 때 큰대를 세우는 법을 말함.

145) 삼버릿줄: 큰대를 묶는 세 갈래의 줄.

146) 줄싸메여: 단단히 묶어 매니.

147) 데통기 소통기 지리에기 양산기 줄전나비: 큰곳 할 때 마당에 세우는 큰대를 장식하는 기메의 종류.

148) 비저나무: 비자(樵子)나무.

149) 상당클: 곳을 할 때 제장 벽의 상단에 달아매는 선반으로 신들이 좌정함.

‘이때나 오랜 혈 건너? 저때나 오랜 혈 건너?’

해연 오랜 말 엇이나,

‘요놈은 즈석(子息) 큰심방 귀썸허다.’

강림이 소문절박(私門結縛)을 시키난, 한창 데시왕맞이 허단 큰심방이 마당에 툭툭 둥글어 갖구나예~. 아무레도 똑똑하고 영등헌, 영력헌 연당 알에 신소미(神小巫)가 잇엇구나. 상계상을<sup>150)</sup> 네여 논다. 저싱기를 네여 논다.

“저싱왕도 왕입네다. 이싱왕도 왕입네다. 엇그제께 염나데왕(閻羅大王) 데리레 가던 강림이 강파디 살려 읍서예~.”

영 허난 법이 잇고, 우리 팔저(八字) 굿인 사름덜은 강림이가 저싱 데령 가는 게 아니고, 삼도맹감 삼처서(三差使)가 데령 가는 법이라, 옛날 옛적 남천문밖 유정싱떡님아가기 싱근 돌에,<sup>151)</sup> 물팡돌에<sup>152)</sup> 노념놀이 해염시난, 파란공에 육간제비를<sup>153)</sup> 쿵에 쿵어동 가난 열일곱은 나난 눈 어둡고, 스물일곱 나난 눈 뜨고, 서른일곱 나난 눈 어둡고, 마흔일곱 나난 눈 뜨고, 시운일곱 나난 눈 어둡고, 예순일곱 나난 눈 떠, 알옛녁에 즈복장제집이 간 보난 단똥애기 열 두 메 무꺼시난,

“영 해 봅서. 맥(脈)이나 지퍼 보게.”

맥은 지평 보난, 속 맥은 죽고 살고 겉 맥은 죽엇구나.

“이 아기 시왕법난에 잡혔우덴.”

백지알데김 놀런<sup>154)</sup> 십 년만이 여주에 삼녹거리 서강베포 땅에 오란,

“십 년 전에 우리 집이 오랑, 소지(所志)에 꺼꺼시난 곳 해줍센.”

해연, 시왕법난에 잡히난, 남천문밖 유정싱떡님아가기 삼시왕에 물멍지 올령 목을 걸련 놀리 난, 어인테인(御印打印) 수리감봉 막음주어근, 신소미 네여 주언, 알옛녁에 간 큰굿 전세남 해연, 일흔일곱에 삼시왕에 종명(終命)해어나난, 팔저 굿인 집인 곳 혈 떼민 이 데목에 맹두맹감 삼처서도 오리정 신청괘도<sup>155)</sup> 신메웁네다예~.<sup>156)</sup>

강림이가 안네를 들어가난, 시왕당클<sup>157)</sup> 알에 펥풍(屏風)을 치라. 펥풍을 치난 네 귀 접상(擗床)을 놓앗구나. 낮인 역가(役價), 밤인 중석,<sup>158)</sup> 열 말 쓸 왕구역, 데덕빵 금시리<sup>159)</sup> 치여 단 올리난, 데덕방 금시리 앓앗구나. 앓이난에 낮인 역가, 밤인 중석, 열 말 쓸 왕구역, 데덕방 금시리 둥글둥글 놀려가난, 염나데왕(閻羅大王)님은 청데 고고리<sup>160)</sup> 올라 가불고, 강림인 일어산 보난 염나데왕(閻羅大王)이 엇구나.<sup>161)</sup> 아이고 염나데왕(閻羅大王) 따시 일러변<sup>162)</sup> 좃 단 보난, 프리 몸에<sup>163)</sup> 환싱해연 청데 고고리에 간 보난 염나데왕(閻羅大王)이 잇엇구나. 따시 소문절박(私門結縛)을 허난 염나데왕(閻羅大王)님이 곤는 말이,

150) 상계상: 시왕맞이의 제상 차림 가운데 하나를.

151) 싱근 돌에: 심은 돌에.

152) 물팡돌에: 하마석(下馬石)에.

153) 육간제비를: 엽전 모양의 무구를.

154) 백지알데김을 놀런: 백지알데김 제차를 할 때 백지를 접은 뒤 산판으로 눌러 다짐을 한다는 뜻.

155) 오리정 신청괘도: 초감제에서 신을 청해 들이는 소제차.

156) 신메웁네다예: 신을 메웁니다. ‘신메우다’는 해당 제차에서 신을 청하여 모시는 것을 말함.

157) 시왕당클: 큰굿을 할 때 설치하는 네 개의 당클 가운데 시왕을 모시는 당클.

158) 중석: 끼니 외로 중간에 먹는 음식.

159) 금시리: 시루.

160) 고고리: 이삭. 여기서는 꼭대기의 뜻임.

161) 엇구나: 없구나.

162) 일러변: 잃어버리고.

163) 프리 몸에: 파리 몸에.

“헌적 내려 강 잇이라. 모릿날<sup>164</sup> 스오시(巳午時)가 당허민 나가 알엇녁더레 내려가마. 동안 (東軒) 마당더레 내려가넨.”

허난,

“어서 기영 협서.”

앞에는 늘 혼 혼 썸(字), 뒤에는 임금 왕 썸(字)를 네여 준다. 백강생이<sup>165</sup> 네여 주멍,  
“가당 보민 백강생이가 행기못더레 빠질 꺼난, 니도 그디 강 빠지민 이싱더레 가진덴.”

허난,

“어서 기영 협서.”

백강생이 뜨랑 내려오단 보난, 행기못이 잇엇구나. 백강생이 들어가난 강림이도 들어가난 이싱에 오랏구나. 이구산에 간 신체에 삼문에 들어간 와들랭이 일어서난 불빛이 보와전 간 보 난 강림이 큰각시 집이로구나. 강림이 저싱 강 사흘 살안 오란 보난, 이싱은 삼 년 첫 식갯 날<sup>166</sup> 뒤엇구나.

“요 문 열라. 요 문 열라~.”

“아이고 뒷집이 박포수건 넬랑<sup>167</sup> 읍서. 넬랑 오민 식게 뒤물(退物) 안네쿠덴.”

허난,

“나가 저싱 갓다 온 강림이엔.”

허난,

“우리 낭군님이건 퀘지(快子) 앞자락 네여 줍센.”

네여 논 건 보난, 나갈 때 찢룬 바농이<sup>168</sup> 꺼꺼지엿구나.

“아이고 낭군님, 살안 오랏구나. 아바님아, 낭군님 살아서 오랏우다. 어머니아, 낭군님 살아 서 오랏우다.”

성제간덜 다 불르난, 아바님은 들어오멍 오른 손목 심영 앓앗구나. 어머니은 들어오멍 왼 흘목을 심연 앓앗구나.

“아바지랑 성편법(姓便法) 마련협서. 어머니랑 웨편법(外便法) 마련협서. 아바지 나 엇이 난 어떤 때 생각이 나압떼가?”

“아이고 나 아덜아, 무디무디 생각나고, 마디마디 생각나고 난 남자난 모든 말을 거풀영<sup>169</sup> 살아져라.”

“아바지 살당, 살당 이세상 떠나민 왕데무작 끊어당 방장데<sup>170</sup> 지프고, 모든 말을 거풀어주 난, 시메옷을<sup>171</sup> 알단을 풀영 아바지 삼년상 공 가파 안네쿠다. 어머니아, 나 엇이난 어떤 때 생각이 납데가?”

“아이고 나 아가야, 어멍 먹먹헌 가심이여.<sup>172</sup> 가시가지 생각이 나라. 굿인 말이나 좋은 말 이나 다 가심더레 물어져렌.”

허난,

“아이고 우리 어머니, 살당, 살당 이세상 떠나불민 동더레 벌은 머구낭<sup>173</sup> 끊어당 방장데

---

164) 모릿날: 모레.

165) 백강생이: 흰 강아지.

166) 식갯날: 기일제삿날.

167) 넬랑: 내일.

168) 바농이: 바늘이.

169) 거풀영: 풀어서.

170) 방장데: 상장(喪杖).

171) 시메옷을: 상복(喪服).

172) 가심이여: 가슴이여.

지프고, 모든 걸 다 감추왔어난 시메웃은 알단 감추완 삼년상 공 가팡 안네쿠다에~. 성제간덜은 나 엇이난 어떤 때 생각이 나넨?”

“아이고 열두 둘 넘엄시난 잇입데다.”

“성제간은 옷 우이 부름이여.”

열두 둘 건복법(巾服法) 마련허고,

“일가방상으로는<sup>174</sup> 나 엇이난 생각이 나아전고?”

“큰일 때 생각이 나난.”

큰일 때 고적 치는 법을<sup>175</sup> 마련허고, 기생호첩(妓生好妾)덜을 불러단,

“나 엇이난 어떤 때 생각나니?”

“아이고 여저 팔전 뒤옹박 팔저. 훈 지방 넘음이나 두 지방 넘음이나.”

“느네덜 열 애기 나도, 아무 필요 엇저. 옷 앞섭 가로삭삭허 젓이민 놈이로구나. 느네덜 앞 발로랑 가렌.”

보내여두고, 조강지처(糟糠之妻) 불령,

“나 엇이난 어떻게연 뉘엇인고?”

“설운 낭군님아, 죽은 수절(守節)도 지켄 앓인걸, 산 수절을 무사 못 지경 앓입네까? 아이고 살암시난 낭군님 살안 오랏우덴.”

허난에, 열녀비(烈女碑)를 세와간다. 효녀비(孝女碑)를 세와간다.

“나영 7찌 살아도 남녀 간에 아기 엇어도, 나보다 당신 먼저 세상 떠나민, 나가 복 입영 일년상(一年喪) 상제 헤여줄로구나에~.”

문딱 가부난, 두갇이 뽀끈허게 안앙 누엇구나. 듯날 아치는 옆집이 박포수는 오늘 강림이 첫 식게 넘어나난, 식겏 튀물(退物)에 술 훈 잔 먹젠 오단 보난, 먼 올레 들어오단 보난 생깃 주둥에<sup>176</sup> 갓도 걸어지고, 옛돌<sup>177</sup> 알에 신발도 벗어지난, 창꼬냥 뜰랑 보난 두갇이 뽀끈허게 안앙 누난, 동안(東軒) 마당에 밀서(密書)가 들엇구나. 앞बाट디랑 장도(長刀) 걸라. 뒷बाट디랑은 버텅<sup>178</sup> 걸라. 즈각(刺客)놈을 불러라. 강림이 동안 마당 네리난 큰칼을 씨앗구나.

“무사 나를 큰칼을 씨암수파?”

“너 어떻게 저싱 강 오렌 허난, 아니 간 낮에는 펥풍(屏風)에 살고, 밤에는 이불살림 살앗느냐?”

“삼척해동(三尺孩童)도 등을 보렌 헤엿우게. 나 등을 바레봅서. 모릿날 스오시(巳午時)가 뉘민 염나데왕(閻羅大王) 네림네덴.”

허난, 아닌 게 아니라 모릿날 스오시(巳午時)가 뉘난, 너분 목로 천둥치고, 좁은 목로 베락치고, 동으로도 청구름, 서으로도 백구름, 와락치라 와락치라 염나데왕(閻羅大王)님이 동안(東軒) 마당에 네리난, 원님은 겁질에 생깃지등으로 환싱헤엿구나. 강림이 목에 큰칼을 베껴두고,

“이 집은 누가 지엿느냐?”

“강태공(姜太公) 서목시(首木手)가 지엿우다.”

“데톱을 갖영오라. 너가 아니 세운 지등이냐?”

173) 머구냥: 머귀나무.

174) 일가방상으로는: 일가 친족으로는.

175) 고적 치는 법을: 장사 때 친족끼리 떡을 만들어다 부조하는 법을. 대개 팔촌 이내의 친족이 쌀 한 말 정도의 떡을 의무적으로 부조함.

176) 생깃지등에: 마루방과 큰방 구들 사이에 세운 기둥.

177) 옛돌: 디딤돌.

178) 버텅: 형틀.

“나 지동 안 세왔우다.”

데톱으로 썰렌 허난, 피가 벌경허게 난 게 원님이 환생허였구나. 그 법으로 집을 짓이민 나무에도 나무 쌀성 잇는 법이라, 세 집을 지어건 성주풀이<sup>179)</sup> 헤여사 그 집을 사는 법입네다 예~.

“어떻 험 일로 나를 청헛느냐?”

하도 후욕(詬辱)헤여가난, 원, 원님은 돌돌 돌돌 털어가난 강림아 곤는 말이,

“저싱에도 왕이 잇고, 이싱에도 왕이 잇인디, 왕과 왕끼리 무사 경 큰 소리 침이꽂?”

“어떻헹 나를 청헛느냐?”

“우리 고을에 과양생이 두갯이가 험 날 험 시에 아덜 삼형제 나고, 험 날 험 시에 과거 헤연 오고, 험 날 험 시에 죽으난, 출병(出兵)을 헤여두고, 아침 소지, 낮 소지, 저녁 소지, 석 돌 열흘 아홉 상자(箱子) 반이 뉘난, 백소지(白所志) 절처(決處)헤여 줍서.”

“과양생이 두갯이 심어오라.”

심어 오랏구나 .

“낱느냐?”

“낱우다.”

“과거 헤연 오랏느냐?”

“과거 헤연 오랏입디다.”

“죽엇느냐?”

“죽엇우다.”

“어디 묻엇느냐?”

“앞बाट, 뉘बाट, 옆बाट 출병(出兵)을 헤엿우다.”

“출병막(出兵幕)을 헤치라.”

출병막을 헤치난 뼈(骨) 간 곳도 엇엇구나. 술(肉) 간 곳도 엇엇구나. 그떼에 염나데왕(閻羅大王)님이 곤는 말이,

“너네덜 범무왕 아기덜 삼형제 중이 행척 출런 오랏이난, 죽연 어디 간 던젼느냐?”

“아이고 나 일이여. 나 일이여. 나 발등 도끼로 나데로 찍엇구나. 그 아기덜 주천강 연네못 디 던젼우덴.”

허난, 주천강 연네못디 내려간다. 한박이여.<sup>180)</sup> 족박이여. 갓단 물을 퍼가도 이 물을 못 펴 구나. 저싱 염나데왕(閻羅大王)님이,

“요왕 황제국님아, 범무왕 아기덜 삼형제 신체 좃젠 헤염수다. 이 물이나 뺨따 줍서.”<sup>181)</sup>

주천강 연네못디 바짝 몰르난, 들물이 잇고, 썰물이 잇엇구나. 가운데로 강 보난 뼈만 솔그랑<sup>182)</sup> 헤엿구나. 염나데왕(閻羅大王)님이 네릴 떼 서천꽃बाट 들연 범무왕 아기덜 삼형제 살릴 꽃, 말 곶을 꽃, 술 오를꽃, 오장육보(五臟六腑) 살아나는 꽃을 놓안 흥남체로 떼렷구나. 범무왕 아기덜 삼형제 와들렷이 살아나앗구나예~. 염나데왕(閻羅大王)님 곤는 말이,

“설운 아기덜아, 느네덜랑 아방국을 좃앙 가라. 어멍국을 좃앙 가라.”

동경국더레 보내엿구나.

“아홉 장남 불르라. 일곱 쉼<sup>183)</sup> 불르라. 일곱 장남 불르라. 아홉 쉼 불르라.”

179) 성주풀이: 가옥이나 건물을 신축하였을 때 하는 굿.

180) 한박이여: 함박이여. 함지박이여.

181) 뺨따 줍서: 줄어들게 하여 주십시오.

182) 솔그랑: 고스란히.

183) 쉼: 소름.

불러다 놓았구나.

“과양생이 두갓이 열두 메 무끄라.”

열두 메 아홉 쉼더레 무껏구나. 일곱 장남은 석을 잡아 이 골목, 저 골목 곳엉<sup>184)</sup> 덩겨가  
난,<sup>185)</sup> 열두 빼가 갈기갈기 찢어지었구나.

“경 해도 아니 뉘키여. 도에냥<sup>186)</sup> 방에에, 무에냥<sup>187)</sup> 절구데에<sup>188)</sup> 낱 득득허게 뵈이라.  
”<sup>189)</sup>

뵈이난,

“너네덜 산 떼도 사름 피 뵈아 먹엇이난, 죽영 가도 사름 몸에 돌아 앓연 피 뵈아 먹영 살  
렌, 오뉴월(五六月) 나건 모기 몸에 환싱허고, 칠팔월(七八月) 나민 국다기<sup>190)</sup> 몸에 환싱허렌.”

허연 마련헤었구나. 일곱 장남이 굳는 말이,

“우리덜 사람 죽여나젠, 사람 구실 못허면 어떻헉네까?”

“너네덜은 사람 죽어나건, 귀양풀이<sup>191)</sup> 헤영 오곡밥을 주건 그 집이 편안(便宜)허게 허고,  
사람 죽어난 귀양풀이 안헤건 다시 석 둘 백일 안네에 급헌 처서(差使) 보내영 얻어먹으라.”

아홉 쉼,

“우린 어덜로 들어갑네까?”

“너네랑 아홉 신앙 쉼막을 좃이허라예~.”

일곱 장남 아홉 쉼 법지법(法之法) 마련헤여돈,

“원님아, 원님아, 강림이가 하도 똑똑허고, 영력허난<sup>192)</sup> 저싱더레 데령 가쿠다.”

“안뵈네다.”

“경 허건 저싱 초보름 살건, 이싱 후보름 데령 삼서.”

“안뵈네다.”

“몸천을 가지쿠가? 혼을 가지쿠가?”

아이고 원님은 강림이 얼굴 보명,

“나 몸천을 가지쿠덴.”

허난, 염나데왕(閻羅大王)님은 강림이 삼혼(三魂)을 걸언 저싱더레 가불엇구나예~. 지동투  
인<sup>193)</sup> 7라 굳는 말이,

“강림이 이레 데령 오라. 우리 강림이 저싱 갖다 온 말이나, 곧고<sup>194)</sup> 술 혼 잔이나 먹게.”

“강림아.”

편편,<sup>195)</sup>

“강림아.”

편편,

---

184) 곳엉: 끌고.

185) 덩겨가난: 다니니깐.

186) 도에냥: 복숭아나무.

187) 무에냥: 산호나무.

188) 절구데에: 절구에.

189) 뵈이라: 뵈아라.

190) 국다기: 각다귀.

191) 귀양풀이: 사람이 죽어 장사 지내고 난 뒤에 벌이는 제주도 곳.

192) 영력허난: 영리하니깐.

193) 지동투인: 기동통인(妓童通引). 관아의 심부름꾼.

194) 곧고: 말하고.

195) 편편: 아무 것도 없다는 뜻.

“아이고 원님아, 강림이 죽은 거 다행이다.”

“아이고 능왕(稜杖)대를 영 거셔보라.”

능왕대를 떠나네, 와들레잉이 떨어지었구나.

“아이고 강림이 죽었우다. 어떻게민 좋고?”

강림이 큰각시 부고(訃告) 전허난, 강림이 큰각시 동안 마당 네 구석 둥그르며,

“아이고 원님아, 우리 낭군님 염나데왕(閻羅大王) 데령 오고 헤엿인디 죽이렌 말이 뭇 말이  
파?”

하도 둥그르난, 시운데 자 수페머리가 허터지었구나. 산뎃지께기로<sup>196</sup> 머리 무꺼난 법으로  
옛날은 머리 푼 상제렌 헤영 성복 전에 머리도 안 굽고<sup>197</sup> 머리도 아니 빚고 허는 법이우다.

“어서 가게.”

집이 오란, 집이 오란 방 안네 이불자리 눅져 두고, 혼적삼 들렁 지봉 상<sup>198</sup>루레<sup>198</sup> 올란 초  
훈, 이훈, 삼훈 헤연 섭섭허다. 초소렴(初小殮)도 섭섭허다. 상물<sup>199</sup> 숲양<sup>200</sup> 데령허연 섭섭허  
다. 입관(入棺)헤연 섭섭허다. 열두 메 메치 클런 섭섭허다. 칠성판(七星板) 더꺼 섭섭허다. 성  
복(成服)헤여도 섭섭허다. 아침제, 낮제, 저녁제도 섭섭허다. 일포(日脯)헤여 섭섭허다. 동관(動  
棺)헤여 섭섭허다. 금마답에 고별(告別) 헤여 섭섭허다. 먼 올레 상이와당<sup>201</sup> 몰켓냥<sup>202</sup> 꾸며  
근 어기영차 담벌<sup>203</sup> 불령 설베,<sup>204</sup> 질베<sup>205</sup> 등겨 하메헤영 섭섭허다. 북망산천(北邙山川) 올  
라강 계광(開棺) 파도 섭섭허다. 하관(下官)헤도 섭섭허다. 상게판(上蓋板), 중게판(中蓋板), 하  
게판(下蓋板) 더꺼 멩전 더꺼 궂이<sup>206</sup> 질러 섭섭허다. 테역단풍<sup>207</sup> 봉분(封墳) 싸도 섭섭허다.  
초우제(初虞祭), 제우제(二虞祭), 삼우제(三虞祭) 헤도 섭섭허다. 초흘루 색일(朔日), 보름 색일  
(朔日) 섭섭허다. 석 들 열흘 졸곡(卒哭) 헤여 섭섭허다. 열두 들 소상(小喪), 스무넛 들 대상  
(大喪), 석 들 백일 담제(禫祭) 헤여 가난, 죽은 이 가심 무캉무캉 석어가는데 풀어지난, 산이  
가심도 풀어지었구나.

강림이 큰각시가 법지법(法之法)을 마련헌덴, 우리 인간은~ 죽은 날을 잊어볼지 안허젠, 신  
체 묻은 디랑 팔월 보름 뒤편가건 벌초(伐草) 소분 법 마련허고, 첫돌 그믐날 저싱문 열려 초  
흘날 이세상에 오라가고, 오월 초나흘날 저싱문 열려 오월단오 이세상 오라가고, 팔월 추석  
열나흘날 문 열영 팔월 보름날 추석에 이세상 오라가고, 죽은 날은 제삿법(祭祀法) 마련헤연,  
옛날은 부모 죽언 효성(孝誠)이 지극허민 시묘살이도 허고, 아침, 점심, 저녁 상식도 출려 놓  
고, 삼년상(三年喪) 허당 시국변천(時局變遷)허난, 일년상(一年喪) 허단 일년상 헤여가단, 경  
헤여도 이제는 백일 탈상(脫喪)허단, 사십구제(四十九祭) 허단, 이젠 삼일로 다 산에서 탈상허  
는 법이 뒤편가다예~.

법지법을 마련헤연 저싱은 가난 염나데왕(閻羅大王)님이,

196) 산뎃지께기로: 발뻬 지푸라기로.

197) 굽고: 감고.

198) 상<sup>198</sup>루레: 용마루에.

199) 상물: 향물.

200) 숲양: 삶아서.

201) 상이와당: 상여(喪輿)화단.

202) 몰켓냥: 상여의 밑을 받치는 장강목(長杠木).

203) 담벌: 담불소리. 제주도 굿 제차 중 석살림 할 때 한집안 내지 씨족(氏族) 수호신(守護神)을 즐겁게  
놀리는 대목의 노래.

204) 설베: 운상할 때에 상여에 매어 앞으로 잡아당기게 된 참바.

205) 질베: 짐을 지는 데 쓰는 줄.

206) 궂이: 꼬챙이.

207) 테역단풍: 잔디에 단풍이 든 모양.

“강림아, 강림아, 인간에 강 팔십 노인 노장덜 데령오렌.”

허난, 가마귀 적베지(赤稗旨) 콤에<sup>208</sup> 콤언 내려오라 가난, 가마귀 앞더레 오란,

“아이고 강림아, 기영 결영 언제 갈티? 나 짓놀게<sup>209</sup> 부찌라. 나가 날아 갓당 오켄.”

허난, 가마귀 짓놀게 부찌난, 가마귀 인간에 내려오단 보난,

“물 죽은 밧디덜 물피쟁이덜<sup>210</sup> 물 잡암구나. 저디 강 앓안 물피 혼 점이나 얻영 먹젠.”

옆인 보난 동소레기가<sup>211</sup> 잇엇구나. ㄱ찌 앓안 까악까악 울어가난 물피쟁이덜 물 발톱 담양  
혹허게 던지난, 까마귀 낱당 보난 짓놀게 꺾 떨어지난 돌 알에 구렁이 나오란 응큼허게 먹어  
불엇구나. 옆이 동소레기 잇이난,

“야 짓베지 봤냐?”

“안 봤저.”

“나 짓베지 도라.”

“안 봤저.”

이제나 까마귀허고 동소레기 호호호 동소레기 싸우는 법입네다. 인간에 오라건 곶을 말이  
엇엇구나. 봐지는양,

“어른도 읍서. 아이도 읍서. 늑신네도 읍서. 젊은이도 읍서. 남자도 읍서. 여자도 읍서.”

하도 까악까악 울엇구나. 저싱이 츠레가 엇이 저싱문이 ㄱ득으난<sup>212</sup> 염나데왕(閻羅大王)님  
은,

“이거 어평헌 일이고? 백발노인 노장덜 데령 오렌 허난 가마 이거 어른도 아이도 엇이 막  
오랏구나. 강림이 심영 오라.”

강림이 심영단,

“너 어평헌 일이나?”

“아이고 그게 아납네다. 가마귀 짓놀게 부찢우다.”

“가마귀 심어 오라.”

보리냥 행불에 밀남 보린 체로,

“어디 일러불엇느냐?”

“돌 알에 구렁이한티 일러불엇우다.”

허난, 그 법으로 베음은 아홉 번 열 번 도환싱 구사십생(九死十生)허는 법입네다.

하도 뚜드려부난 창진<sup>213</sup> 두루 서껴지고, 멧독엔 검은 독이 뒤퍼지고, 몸천은 시커멍허고,  
걸음은 걸젠 허난 걸지 못헤연 앙금주축 걸어간다. 염나데왕(閻羅大王)도 법지법 마련허는디,

“나도 인간에 오랑 법지법을 마련허저. 아침에 우는 까마귀 아이 죽고, 낮에 우는 까마귀는  
젊은이 죽고, 미시에 우는 까마귀는 노인, 노인네가 죽고, 초저녁에 와자자 울민 동네에 폐싸  
움 나고, 야밤중에 꺾이 우는 까마귀는 도릿나 살인(殺人), 역적(逆賊), 도둑, 방화(放火) 날 까  
마귀네다. 까마귀도 너미 울민 반처서(半差使)엔 허웁네다예~.”

강림이가 저싱 가난, 염나데왕(閻羅大王)님이 곤는<sup>214</sup> 말이,

“강림아, 동방색이가 삼천년(三千年)을 살안 데리레 가민 어른이 뒤퍼고, 데리레 가민 아이가

---

208) 콤에: 품에.

209) 짓놀게: 날개.

210) 물피쟁이덜: 말 잡는 사람들.

211) 동소레기가: 솔개가.

212) ㄱ득으난: 가득하니깐.

213) 창진: 창자는.

214) 곤는: 말하는.

됐고, 데리레 가민 남저가 됐고, 여저가 뉘엄시난 너 강 동방색일 심영 오렌.”

허난, 주년국 땅에 오랏구나. 주년국 땅에 오란 검은 솟을 골체에<sup>215)</sup> 놓안 와각질각 싯챜구나. 아이고 소스만인 동방색이로구나. 물 물 맥이레 오란 보난 검은 솟을 골체에 낱 알각질각 싯챜시난,

“무사 경 싯침이파?”

“아이고 모릅데가? 검은 솟도 싯침시민 힌덴 헤연 싯침수다.”

“나가 동방색인디, 나가 요거 처음 듣는 말이로구나.”

‘요 어른이 동방색이로구나.’

헤연 강림이가 저싱더레 데령 간 법잇습네다~. 처서님 난산국에 풀엇습니다.

차사본풀이>주잔넘김

<○○야> 주잔덜랑 네여다가 시군문 연드리에 주잔덜랑 천왕처서(天皇差使), 지왕처서(地皇差使), 인왕처서(人皇差使)님, 연직(年職), 월직(月職), 일직(日職), 시직스제(時職使者), 금부도서(禁府都事), 이원스제(二元使者), 강림스제(姜林使者), 부원군스제(府院君使者), 멩두멩감 삼처서(三差使), 화덕처서(火-差使), 기헤년 몸 받은 처서, 눈이 붉언 황스제(黃使者), 코이 불어 모란스제, 입이 붉언 악심스제(惡心使者), 아미도령 처서, 본당처서(本堂差使), 신당처서(神堂差者), 노중처서(路中差使), 도약처서(毒藥差使), 절량처서(結項差者) 주잔입네다. 일곱귀양 아홉신양 두에도 주잔입네다. 많이 많이 열두 소잔입네다예~.

---

215) 골체에: 삼태기에.